

Your  
God  
reigns

네 하나님  
통치하시도다!

(이사야 52:7)

글 / 홍장희 목사 (BMC 원장)

## 목차

### 03

#### *IBMC의 시작*

설립배경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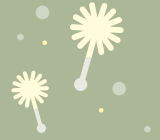
#### *IBMC의 씨앗*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선교사님과 40년!

### 36

#### *IBMC의 열매*

하늘에도 슬픔이 우리도 슬픔이!



# IBMC의 시작

설립배경



# Your God reigns



교회개척연구원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교회개척 사역과 함께 시작한다.

나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목사  
와 함께 선교사역을 했다. 이 경험은 내 생애에 걸쳐 소중한 경험  
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1893  
년 1월 28일 상호 원활한 선교를 위하  
여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Government)’를 결성하였다. 이때 ‘네  
비우스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10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 가운데 의료선

교는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전개시킨다. 지방에서 온 장기 환자는 퇴원 후 심방해서 그 지방 교회 전도사와 연결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남장로교 허철선 선교사는 광주기독병원 원목(1967-1985)으로 사역하면서 그 원칙을 계속 실천해 왔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실 가족들은 입원한 환자들에게 전도하여 결신하도록 했고, 나는 결신한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 그들을 찾아 지역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사역은 호남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하여 신학공부를 마칠때까지 7년을 하루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땅끝까지 이르는 거리를 순회한 것이다. 결신자 순회사역은 미국 남장로교 교회개척에 동역하는 사역이었지만 호남지역 농,어촌을 위한 지도자를 양육하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다. 선교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사례비는 목회자로 성장하면서 남다른 복음의 빛을 지고 있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개척을 하게 된다. 신학교 재학 중에 내가 다니던 대인교회가 어렵게 되었다. 교회신축이 무산되면서 담임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신 것이다. 이 일로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했던 젊은층과 어른층이

분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일까지 대립되면서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인들은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젊은층들은 분립하여 나가고자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교회 중요한 모든 기관을 책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거취는 중요했다. 젊은층들은 교회를 개척하자고 나를 계속 권유했고, 어른들은 나의 거취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지부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떠나신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교회개척을 독려하러 오신 것이다. 젊은층들이 부탁하여 찾아 오신 것을 나중에 알았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교회개척을 하라”, 오랜 시간 권면하고 가셨다. 나는 신학생으로 고민되어 교수님을 찾아 사정을 말씀드렸다.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했다. 학생신분으로 교회분립에 가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성 말씀까지 하시며 적극 만류하셨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교회개척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나를 포함 젊은 층 7명(교회창립위원)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위원중 피택장로가 있어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교회만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되고 있다.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름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감히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교회가 분립되었다. 1979년 10월 21일 가정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울었다. 울면서 설교했다. 함께했던 모두가 울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피값을 치러야 하는 아픔이 따랐던 것이다. 다음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



다. 민주화를 위해 많은 피가 희생되었듯이 교회는 더욱 그러했다. 새롭게 시작된 교회 성도들은 이단이 취급당했고, 많은 비난도 따랐다. 광주벤엘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어려움이 더할 수록 힘을 모았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분명하게 교회의 기초를 다졌다. 점차 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회 설립을 반대했던 전남 노회는 많은 언쟁끝에 교회 설립을 허락해야 했다. 비로소 담임목사님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창립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영성을 일깨워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가슴에 품었던 비전도 확실하게 보이셨다. 시간이 갈수록 선포했던 비전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갔다

교회가 변화하며 성장한 것이다. 36년이 지난 지금 호남지역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광주벤엘교회 성장과 함께 벤엘교회 이름으로 재생산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고전 3:1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나는 교회를 심는 일에 시작의 사람이었지만 잘 모르고 지내왔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젊은 시절 교회개척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나는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두 번째 주일동에 대현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기에 주저함 없이 시작했다. 첫 삽을 뜨고 교회를 세웠지만 집안 사정으로 가졌던 비전을 접어야 했다. 시작은 잘 했지만 중도에 교회개척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었다. 시찰회 지도와 중재도 있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건물이 필요한 만인교회와 병합하고 남문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당시 개척한 교회 이름은 없어졌지만 교회개척에 함께했던 사람은 지금도 같이하고 있다. 당시 교회개척에 함께했던 한순진 전도사는 현재 미국 남침례교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를 지원하는 KTEE(Korea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디렉터로 성실하게 사역하며





세계 선교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는 한순진 목사의 KTEE 세미나를 무엇인지 잘 모르고 먼 발치에서 격려하며 바라만 보았는데,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TEE를 이해하게 되었다. TEE는 랄프윈터 박사가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시작했던 것이며, 이후 세계 각지역에 설립되는 TEE사역활동을 원격지원하기 위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교 세계선교센터가 설립된 것이다. 지금도 세계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랄프윈터 박사 이론이 TEE 사역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새삼 놀랐다. 이후 TEE세미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33년전 교회개척을 위해 함께 했던 전도사가 지금 ‘교회개척연구원’ 개원예배를 준비하며 후원했다. ‘교회개척연구원’과 ‘KTEE’는 교회개척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다. 나도 한순진 목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KTEE 한국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세 번째 교회개척을 하게 된다. 1988년 목사임직 받기 직전 광명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였다. 지금의 오병이어교회 자리에 구



건물이 지금도 있다. 교인들의 형편이 어렵기도 했지만 은사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기존교회에 합류하지 못하고 따로 모이는 가

정교회였다. 예배처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토굴을 파고 이슬을 피하기 위하여 비닐로 지붕을 삼고 기도예 전념하는 교인들이었다. 처지는 어려웠지만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이었기에 생명력이 있었다.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경험했다. 주님의 은혜로 봉선동에 작은 교회를 건축하며 큰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교회개혁의 어려움은 많은 문제와 아쉬움을 남겼다. 또 다른 교회개혁 경험으로 기억된다. 지금의 봉선교회 이야기다.

나는 농촌 김제명량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목회한 적이 있다. 김제명량교회는 동료목사의 고향교회이다. 동료목사는 광주에서 본 교회 예배를 마치고 먼 거리 고향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사역은 역사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훌륭한 교회이었는데 교회분쟁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나는 목사님 권유를 받고 먼 거리를 왕래하며 예배인도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2년 반 세월을 보낸 것이다. 교회가 염려되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장로님과 교인들은 분쟁을 그치고 헌신하는 일에 경쟁을 하였다. 삶의 남은 날을 계산하며 세월을 아꼈다. 역시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는 달랐다. 매일 새

벽교회를 인도하며 먼거리를 왕래하였다. 몸만 오갔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주보에 담임목사로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경력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개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 또한 교회개척 이상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다음은 지금 시무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이다. 2001년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기다리는 시점에 부임을 한 것이다. 전에는 활동적인 조직교회이었는데 부임할 때는 노인 몇 분만 남고 모두 떠났고 떠나고 있었다. 최고의 설교자 권위를 가지셨던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성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떠난 것이다. 나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고 주저앉은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은 새로 개척하는 것 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고 도망가기도 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 139:7).”

가는 곳마다 그 분은 거기 계셨다. 다시 돌아와 교회 이름도 새롭게 하고 가장 좋은 지역을 택하여 교회 신축도 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교회성장의 기대도 품었지만 생명력을 회복하기 어려

왔다. 이유는 분명했다. 목회자가 목회에 마음을 두지 못한 원인도 크지만 교회건축 과정에서 목회자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힘을 잃은 것이다. 새로운 일군이 세워져도 교회의 주권이 사람으로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알아 차렸다.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변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교회개혁의 어려움을 뼈속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힘들게 지내온 어려운 목회였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다면 잠시 부임하여 함께 일했던 교역자들이 교회를 개혁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세 개의 교회가 개혁되어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교회적으로 지원은 못했지만 함께 사역하는 동안 개혁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교회를 개혁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 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 교회를 지속하여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개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호남지역을 순회하며 교회개혁을 하던 선교사들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것이다.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로버트 클린턴(Dr. J. Robert Clinton) 교수의 long time development에 비추어 보면 나의 개발된 은사는 ‘교회개혁’이었고 평생사역으로 정립되어 ‘교회개혁연구원’ 설

립 배경이 된 것이다. 미국 풀러신학교에서는 타문화 선교를 위하여 교회개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교회성장 이론에 밀려 교회개혁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개혁된 교회가 병합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시대적 착오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도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성장해야 한다. 성장한 교회는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예수께서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우신다. 거룩한 체험을 간직한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세워가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역사하는 곳이다.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이다.

전쟁과 재난이 쓸고 간 빈 터 위에도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한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풍요와 인간의 이기는 교회를 외면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가 어렵다고 문을 닫고 돌아서도 그 문을 다시 여는 개혁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개



척자들을 위하여 교회개혁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내게 숙명이다.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두려운 마음도 있다.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도 해야한다는 음성이 들린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출발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세상을 위하여 외롭게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나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주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19).”



이 글은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the Honam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 Min. in Global Ministry. 학위 논문 연구 배경에 기록된 글입니다.



## IBMC의 씨앗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선교사님과 40년!



Your  
God  
reigns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가 된다.  
나의 전화에 이런 메시지가 날아왔다.

“선교사님 출생일이 1936년 7월 9일,  
한국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신 날도 1985년 7월 9일,  
추모예배일도 2017년 7월 9일,  
목사님! 신비하네요.”

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는 2017년 6월 12일 미국 NC, Cary에 계시는 허철선(Charles



Betts Huntley) 선교사님 부부를 방문했다(선교사님 이름을 평소에 즐겨 사용했던 헨틀리 선교사로 사용한다).

나의 방문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 첫 번째 이야기

나는 2012년 3월 노년에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을 찾았다. 은퇴를 준비하여야 할 나이에 대학원 입학은 한 것이다. 나의 의도보다는 무엇에 매임을



받아 이끌려 미국에 온 것이다. 나를 따라온 아내도 왜 나까지 따라와야 하느냐고 불편을 호소했다.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어린이 놀이터에서 같은 나이 뺨의 목사님을 만났다. 그 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은퇴하고 사위와 딸이 풀러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손자들을 돌보아 주려고 여행 삼아 오셨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나도 당장 그만 두고 돌아가 이정도 사역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다. 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간, 시간마다 반전이 일어났다. 특별한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는 것처럼 격려와 함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낱알이 파헤쳐지는 시간들이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젊은 시절 미국남

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사역했던 기억도 함께 따라왔다. 이러한 기억들은 흔들리는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정리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었다.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심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희미한 거울 속에서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으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발된 은사는 ‘교회개혁’으로 정리되었고 평생 사역으로 ‘교회개혁연구원’의 비전도 품게 하셨다.

## 두 번째 이야기

이 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몸이 지치도록 책과 씨름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나름 연구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혔다. 그다음을 찾지 못한 것이다.

연구를 중단하고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 지난날 함께했던 헌틀리 선교사님을 찾는 일이었다.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헌틀리 선교사님을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아직 살아 계신다



는 소식에 무척 다행이라 여겼다. 지체할 수 없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실에서 비행기 티켓을 먼저 마

련하고 메일과 전화로 방문일정을 조율했다.

2016년 5월 19일 지도교수와 함께 처음 방문이 이루어졌다. 글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들이었다. 허철선 선교사님은 이들 동안 눈시울을 붉혔고 사모님은 남편의 뛰는 심장을 염려하여 늘 손을 잡고 안정을 시켰다. 우리 모두는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철없이 투정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조를 때마다, “당신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농, 어촌(호남지역)을 위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철없던 일들이 몽게구름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첫 마디는 한국말로 똑똑하게 “이놈, 아직 살아서 왔구나!” 였다.

“이놈, 아직 살아서 왔구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발화되던 때에 너무 끔찍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교사님은 내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울면서 나를 찾아다닌 적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갔을 때 나를 가슴에 안고 울면서 하신 말씀이 “이놈, 아직 살아있었구나!” 였다. 그래서 우리는 5.18 이야기로 시작해서 5.18 이야기로 마쳤다. 중요 현





장에 있었던 나는 5.18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러 외면하고 찢겨진 마음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잊혀진 그 모든 것도 되살아났다.

함께 동행했던 지도교수는 그때에도 프로 정신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연구한 사역을 설명하고 선교사님의 유품을 요구했다. 헌틀리 선교사님은 1982년 10월 26일 나의 결혼식 주례를 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주례 노트를 건네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는 말도 놓치지 않았다.

지도교수는 다음으로 나를 무릎을 꿇게 하고 헌틀리 선교사 부부의 안수 기도를 요청했다. 헌틀리 선교사 부부는 머리에 손을 올려 나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하셨다. 기도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사역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모습이 사진에 담겨있었다. 지도교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헌틀리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부탁하였다. 모두가 다 오래전 사람들이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셨다.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양림동 옛 헌틀리 선교사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꼭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에 돌아와 부탁한 대로 광주 양림동 옛 헌틀리 선교사 사택을 찾았다. 옛날에 헌틀리 선교사 가족이 휴가를 떠나면 잔디를 깔고 집을 지켰던 집이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발걸음이었다. 아래층 창고를 바라볼 때 젊은 시절 호남지역을 순회할 때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건물이 오래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는데 다행스럽게 곳곳에서 건물을 보존하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그 건물은 호남신학대학교 소유로 ‘The 1904’ 선교단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영성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 계속되기를 바라며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사람에게 헌틀리 선교사의 소식을 전하고 부탁한 일을 마쳤다.



이 소식은 다음 일을 일으켰다. 헌틀리 선교사 소식을 접한 ‘The 1904’는 이 소식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집’에 알렸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2017년 개원 11주년 기념 오월 어머니상을 헌틀리 선교사 부부에게 다시 드리기로 결

정했다. 오월 어머니집 가족들은 5.18 당시에 헌틀리 선교사님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분을 잊지 못하고 처음부터 상을 마련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미루어 왔던 것이다. 지난해 뜻깊은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헌틀리 선교사님을 한국에 모시기 위하여 초청을 했고 오시겠다는 답장도 받고 정성껏 맞을 준비도 했었다. 그러나 큰 기대와는 달리 건강상 이유로 오시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실망은 지켜보지 않았어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2016년 5월 19일 헌틀리 선교사님을 방문했고 마지막 나서는 길에 꼭 안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은 이런 이유에서 간곡히 부탁한 사실을 돌아와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사연을 듣고 다음 해 6월 중에 미국 방문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듣고 ‘오월 어머니집’에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헌틀리 선교사를 위한 상을 준비했다. 2017년 5월 16일



‘오월어머니집’ 11주년 기념식에서 헌틀리 선교사에게 드리는 상을 내가 대신 받았다. 나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와 부상으로 받은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900을 준비하고 또 하나의 방문계획을 준비한 것이다.

##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평생 사역으로 비전을 품었던 ‘교회개척연구원’을 언제 개원하고 시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기회를 찾았다. 설립 배경에 담긴 내용대로 여리고 성벽을 넘어야 할 각오도 있어야 하지만 사역에 비해 가소롭고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틀리 선교사님을 생각하니 조금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작년 헤어질 때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머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헌틀리 선교사님이 호남지역을 위하여



일했던 사역의 열매와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사들의 유업이 계속될 것임을 꼭 알게 하고 싶어 서둘렀던 것이다.

나는 헌틀리 선교사님과 함께 한 시대를 함께했던 원로, 은퇴목사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내던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개척연구원’ 개원예배순서 기도를 요청하며 준비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절실하게 여겨졌다. 한 분 한 분 찾을 때마다 모두 마음을 같이해 주셨다.

2017년 5월 19일 전남노회 은퇴목사회 후원으로 ‘교회개척연구원’ 개원예배를 옛 헌틀리 선교사 사택 garden에서 가졌다. 한 시대를 감당하셨던 원로 어른들의 사역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 책임도 크게 느끼며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 네 번째 이야기

2017년 6월 중순에 미국에 가야하는 이유는 지난해 헌틀리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 그동안 연구했던 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지도교수님도 헌틀리 선교사님을 만난 후 연구결과를 인정했다. 눈



앞에 펼쳐진 일들을 공유하면서 행복해하셨다. 그리고 특별상(Award of Donald McGavran)까지 마련해 주셨다. 준비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격려의 뜻이 담



겨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017년 6월 8일~10일까지 풀러신학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나는 선교대학원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호남지역 교회개척 선교전략 연구”로 선교목회학 박사를 수여받았다.

“A missiological description of the Honam church planting strategie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Church growth perspectives of Donald McGavra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 Min. in Global Ministry.

나는 2006년 5월 12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Howard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와 호남신학대학교 박사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지막 그룹으로 참여하여 학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과정을 간과하고 중도에 마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나 지도교수님은 계속 연구할 것을 종용했고 한국에까지 찾아와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사역해온 모든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큰 은혜, 비밀이었다. 지도교수님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대처하셨다. 나는 내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헨틀리 선교사님을 찾아 달려갔던 것이다.



나는 둘째 아들에게 미국 일정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들은 미국에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동의했지만 풀러신학교 졸업과 헌트리 선

교사님 까지 만나야 하는 일정은 만만치 않았다. 아들은 불평 대신 “이번에 비행기 실컷 탄다”고 불만을 대신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다녔던 과정에서 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늦은 나이에 졸업하는 아버지와 헌트리 선교사의 만남을 함께 하면서 믿음의 유업을 알게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준비를 해왔는데 많은 갈등과 고민끝에 신학으로 방향을 전환한 기회를 삼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지금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제자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2017년 6월 12일 아침 롤리-더럼 국제공항(RDU)에 도착했다. 작년에 방문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꼈다. 헌트리 선교사님 방문을 위하여 37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참석했다. 새로운 정부 이야기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연설도 꼼꼼히 챙겼다. 마지막 노년을 위로하고 많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아들과 함께 문 앞에 이르자 예상한 대로 기뻐하며 맞아주셨다. 아들과의 동행을 더욱 기뻐하셨다. 나는 장사꾼처럼 자리를 펴고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다. 개인이 부탁한 와이셔츠, 오월어머니집 생패와 \$900, 교회개척연구원 개월예배 순서지와 사진들을 펼쳐 보



이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헌틀리 선교사 부부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박사학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비로소 젊은 날에 공부하고 싶다고 철없이 투정했던 다툼도 기쁨으로 해결되었다. 예쁜 카드에 한글과 영어로 기록한 축하의 글과 \$100 귀한 선물이 담겨 있었다. 변화산의 경험이 재현되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 사도바울이 설명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크게 경험했다.

헌틀리 선교사님은 기뻐하다가 한가지 안타까움을 남겼다. 기쁘

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먹구름으로 다가왔기에 여기에 글을 남긴다.

“나는 전두환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안됐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차갑고 냉랭한 기운도 우리의 뜨거운 만남을 이기지 못했다. 축복의 시간들을 마치고 우리는 헤어지면서 또 만나자고 약속했다. 지난번에는 “영원히 못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날 오후 우리가 떠나면 다음 날 여행을 준비해서 3일 동안 가족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즐거워하셨다. 또 다른 행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환송했다.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들과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글을 시작하면서 신비하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였다. 1978년에 헨틀리 선교사님 부부 만남을 시작으로 2017년 늦은 나이에 학위를 마치기까지 정확하게 40년이다. 지난 40년의 시간을 헤아려 확인한 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며 불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호렙산에 이른다. 설명하기에 지면이 좁다.

노아시대의 40일 주야 비를 내리는 심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지체하면서 받은 십계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한 40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한 40일, 로템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 호렙산을 향하던 40일, 니느

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40일 회개기도, 예수님 공생애 시작과 함께 40일 광야 생활, 부활 후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이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더도 덜도 아닌 40년의 세월을 채우며 지금껏 섭리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다. 이 일을 위하여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다.

## 다섯 번째 이야기

한국에 돌아와 보니 구체적인 여행 일정과 감사의 메일이 와 있었다. 이후 나는 즐거운 여행 중이라 여기고 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역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맨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화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헌틀리 선교사님이 지난 6월 26일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유가 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을까? 우리의 만남이 문제가 있었나? 그때 너무 철없이 좋아했나? 나누는 기쁨을



조절했어야 하는데! 별생각들이 다 몰려왔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사모님께서 이미 소천하신 내용을 보내셨는데

미처 열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모님이 보낸 메일은 교회개척연  
구원 웹사이트(ibmc.kr)에 있다.

메일을 보낸 날짜가 2017년 6월 30일(4일 전)로 기록이 남아있  
었다. 소천 후 바로 적어 보낸 메일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에 메일을 간과했던 것이다. 나는 헌틀리 선교사님과 함께했  
던 행복한 시간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똑같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 메일을 보고 나 때문이었을까?  
라는 무거운 마음은 사라졌다.

나도 잊었던 헌틀리 선교사님을 기억해 내었지만 선교사님도 그  
동안 잃었던 나를 찾으셨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아픔도 오  
월어머니집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고 크게 위로를 받았으며 무척  
명예롭게 여기셨다.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도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빛나게  
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여행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  
기로 소망을 전했다. 그리고 한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환하게 하셨다.

헌틀리 선교사님은 나에게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수 있겠습니다.”

나는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선교사님은 딸들에게 부탁을



해 두었다고 했다. 늘 한국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반쪽은 고향에 반쪽은 한국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는 한국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환영할 것이라 답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책임을 갖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헌틀리 선교사 부부는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고 이제야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 얼굴의 미소는 계속되었고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찍은 마지막 사진에서 그 기쁨을 여실히 찾을 수 있었다.

헌틀리 사모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메일에 남겼다. 예상한 대로 헌틀리 선교사님을 사랑하며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환영하며 유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맺는 이야기

구약성서에 소개되는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치른 대표적인 사람이다.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한 사람도 욥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욥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23-26).”

모든 고난을 이긴 원동력이 부활 신앙에 있음을 노래했다.

‘헌틀리 선교사와 40년’ 이 글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새삼 또 읽어가면서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여기에는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하셨고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이시며 마지막 외침도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 바울도 마지막까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한다. 교회개혁, 교회성장, 원동력이 무엇일까? 각자가 배우고 경험한 많은 원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 이렇게 고백한다. 천당 이야기가 맞다. 죽음으로 말하는 하늘나라가 답이다. 목회를 위한 많은 재능들이 필요하지만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내 집 있네’ 찬송을 부르는 믿음이다.

헌틀리 선교사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 선교사로 지낼 때에는 그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다. 헌틀리 선교사 부부는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살았다. 지금은 부부가 서로 헤어졌지만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산다.

‘교회개혁연구원’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 이야기로 원동력을 삼고 출발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철도 위에 놓인 레일과 같이 여기고 교회는 그 위를 달리도록 해야 한다. 탈선은 재앙이다. 다른 길

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비밀이 크고 아름다운 일이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짝퉁 신천지들은 별거벗은 자의 수치를 드러내고 무너질 것이다.

아!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자.

지금도 그의 몸인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세상 역사를 새롭게 기록으로 남기신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들린다.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 IBMC의 열매

하늘에도 슬픔이  
우리도 슬픔이!



Your  
God  
reigns



## “1980년 5월 18일 하늘에도 슬픔이 우리도 슬픔이”

마사 헌틀리(Martha Huntley) 사모님이 2018년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 국가 기념식에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의 말이다. 여기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지금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생존자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의 유골을 성스러운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광주에서 살았던 17년 동안 광주 시민들을 사랑하고, 배움을 얻으며 경탄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특히 5.18민주화운동 후에 그 마음이 더욱 더 커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하는 친구, 제자들과 함께 한국 땅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보!

사랑하는 친구,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입니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광주, 대한민국을 위해 고통받고 피흘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내가 본 1980년 5.18 당시의 광주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의 인간애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광주기독병원과 다른 병원들에 헌혈하러 찾아온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를 나



누어서는 안된다고 말려야 할 지경  
이었습니다.

당신이 쓴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당  
신의 회고록 끝 부분에 우리가 살았  
던 때를 추억하면서 쓴 글귀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20년을 되돌아 보며  
다 기억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  
들과 그들의 언어로 가슴깊은 대화  
를 나누고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마법과도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광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 광주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이제  
정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동시 통역을 옮긴 글입니다.)

나는 이 글을 정리하면서 세상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여 법궤를 메고 들어 올 때에 춤추며 외쳤던 말씀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 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찬송가 19장,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대상 16:31).”

헌틀리 선교사 가정은 1965년 9월 3일 한국에 도착하여 1985년 9월 7일까지 20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선교사로 한국을 떠났다. 떠난 이후 그의 이름은 2018년 지금까지 33년 동안 기억



되는 일이 없었다. 헌틀리 선교사와 함께 사역했던 나도 그를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새롭게 확정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헌틀리 선교사를 기억하셨다. 창세전에 그의 생애를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한국으로 보내셨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어릴때부터 카메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누나, 고모는 8mm 캠코더를 가지고 있었다. 회고록에 “나는 카메라 주변을 뛰어 다녔고,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고 어린 때를 기록했다. 그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진을 남겼다. 사진기가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지역 목회자들의 생활을 담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특별히 5.18 당시 사건, 사건을 담아 세계에 알렸던 것은 이미 준비된 일이었다. 마

사 헌틀리 사모님은 우수하고 뛰어난 기자였다. 내가 헌틀리 선교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사모님은 항상 글을 쓰고 있었다. 헌틀리 사모님이 5.18 참상을 기록으로 남겨 세계에 알리므로 가려진 어두운 장막이 걷어 지고 진실은 산위의 등불처럼 빛을 발했다. 남편은 사진으로 사모님은 글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심에 있었다. 국가 기념식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5.18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2012년으로 돌아간다. 그때 나의 영혼은 고삐풀린 짐승처럼 뛰기 시작했다. 생활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영적 갈등과 위기, 침체, 고립을 겪으면서 살과 뼈의 진액을 짜는 고통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건강했던 몸도 메마른 풀이 되었다. 이런 위기에서 후배의 안내로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가게 된 것이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것 처럼 미국 풀러신학교 마당에 떨



어진 것이다.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떠 밀려온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젊은 날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했던 영성이 조금씩 살아났다. 나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고 심판대 위에 누워서 심령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칼로 낱알이 해부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조각들이 하나 하나 펼쳐지는 시간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받고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펼쳐졌다.

다음 계속된 일은 성령에 매인바 되어 헌틀리 선교사를 만났고 선교사님은 나에게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배후에서 계획대로 역사하셨다. 헌틀리 선교사는 한국에 있을 때 광주 양림동 선교사묘지를 정성껏 관리했다. 그곳에 당신의 유골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헌틀리 선교사와 약속한대로 유해 안장식을 은밀한 가운데 준비했다. 그런데 이 일은 감출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알리기 위해 세상을 흔들어 놓으셨다. 헌틀리 선교사의 안장식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든 언론사 카메라도 총동원되어 날마다 인



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YouTube, 방송, 신문에 헌틀리 선교사 사랑과 헌신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헌틀리 선교사 선교묘

지 안장식은 2018년 5월 17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거룩한 예식으로 마쳤다.



The 1904 선교단체, 조대여고 민주동아리 학생들, 광주기독병원, 오월 어머니집, 5.18 기념재단, 국가 보훈처까지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동

원되었다. 하나님은 헌틀리 선교사 가족을 세우셔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세워진 오늘의 역사를 ‘정의’라는 단어로 단장하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리셨다. 국내 외 모든 언론기관도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고 다투어 경쟁하며 세상에 알렸다.

이 일들은 나에게 남다른 신적 경험이였다. 나는 지금 어린시절 나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눈발이 몰아치는 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어두움을 몰고 오시는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때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보던 눈두렁 길도 보인다. 이리 저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찾는다.

옴은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신앙고백을 남겼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10).”

나는 오랜 세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텅빈 마음의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나의 기도는 단 한가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이었다.

나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헌틀리선교사님을 잊고 지냈다. 가슴에 텅빈 무어든 헌틀리선교사, 5.18 민주화운동, 받은 은혜를 잊고 지내는 것이였다. 선교사와 함께 했던 과거도 잊고, 5.18 민주화운동도 외면했다. 내가 본 5.18 참상은 나를 비겁하게 만들었다.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잊으려 애썼다. 과거를 버리는 것은 바로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기쁨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 은혜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헌틀리 선교사와 함께 지내 온 과거 기억들이 줄기에 붙은 고구마처럼 따라 올라왔다. 나는 비로서 텅빈 마음이 채워지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 헌트리선교사는 5.18 사건을 되짚으며 살아오셨고 나를 만나자 다 털어 놓으셨다. 이후 나는 지나온 40년, 걸어온 길이 보이고 어릴적 아버지 품에 안겨 야간 열차를 타고 갔던 기억도 살아났다.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는데 그 때 아버지는 사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동지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길이였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다. 신학교 다닐 때 식권을 아껴가며 모았던 돈으로 마



련한 칼빈주석을 책장에서 다시 꺼내들었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대로 준비하신 길을 가는 세상 나그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한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구원행동을 보이셨다. 그분의 이야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계속된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지역에 교회를 세워갔다. 남자는 말을 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먼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나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건물도 세웠다. 교육을 위해 학교와 의료기관과 여러 복지 시설을 설립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은 호남지역에 빛이되어 어두움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 한 마디로 정리하고 무대위로 사라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다가 가을 낙옆처럼 사라진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

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사 52:7)”

나는 젊은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복음을 들고 호남지역교회를 순회하던 지난 날들이 있어 다행이다. 한 영혼을 찾아 시골길 구석 구석을 헤치며 달려온 그 길이 나의 인생길로 다가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그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야 하는데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제라도 정리해 본다.

나의 복음 선포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Out Come은 ‘나는 호남지역 교회를 섬기는 자다’  
나의 개발된 은사는 ‘교회개혁’  
나의 평생사역은 ‘교회개혁연구원’이다.

교회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근원이 된다(엡 1:23).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도 사람들의 집단도 아니다.

교회론의 대가 한스 쾅 교수는 역사안에 활동하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안에, 인간을 위해, 인간





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교회의 본질로 규정한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교회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마 16:18). 그래서 교회의 절대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일하신다.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나는 어릴적 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에 교회를 다녔다. 교회는 읍내에 있었고 교회까지 가는 길은 어린 나에게 무척이나 멀었다. 어른이 되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았는데 오리가 훨씬 넘었다. 어머니는 먼길 나를 동무삼아 데리고 가신 것이다. 어떤 이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어머니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다. 교회도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꿈도 품게하시고 교회를 위한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

이 글은 마사 헌틀리(Martha Huntley) 사모님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5.18 기념재단에서 사모님께 2018년도 인권상을 드리기 위해 초청하였다. 헌트리선교사 소천이후 약속된 유해 안장식을 위해 내가 미국에 가야 하는지, 가족들이 오시는지 의논하고 있던 중



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사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오셨다.

헌틀리 선교사 가족은 유해와 함께 귀한 선물도 가지고 오셨다. 헌틀리선교사가 사용하셨던 박사가운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유품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큰 의미가 담겨진 선물이다. 그 선물을 전달 받고 나는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했다. 교회개척을 위한 그의 유업이 다음세대에 계속되도록 부탁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나는 이 가운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마사 헌틀리(Martha Huntley) 사모님과 가족들이 미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보였다. 가슴의 기쁨을 뜨거운 포용으로 대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떠나는 열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라도 외치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보이리라.

매일 아침, 아니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나의 복음 선포문을 외친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글은 ‘교회개혁연구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했다.